

해양부, CO2 심해처리 기술 개발 본격 착수

지구 온난화와 교토의정서 발효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발효된 교토의정서와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해 발전소 등 육상의 대량 발생원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주범인 CO2를 포집해 수심 2000m 이상의 심해에 격리·처리하는 기술개발에 착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2015년 이후 실용화를 목표로 향후 10년간 400억원을 투입, 대규모 CO2 발생원으로부터 분리·포집된 연간 1000만톤 규모의 CO2를 수천년 이상 장기간 심해에 격리 저장시킬 수 있는 신기술이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로 선진 각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 사업은 일본에서도 지난 97년부터 연간 2000만~8000만톤 규모의 CO2를 해양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온실가스의 87% 이상을 차지하는 CO2는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에너지 사용에서 대부분 배출되는데,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6% 감축시키도록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CO2 발생량은 약 4억5000만톤(2002년기준)으로 세계 9위, 과거 10년간 증가율은 세계 1위로서 교토의정서 2차 이행기간(2013~2017년)중에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가 입는 경제적 손해는 수십 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CO2 전체 발생량의 35% 가량을 차지하는 발전소와 제철소 등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고려대 등 국내 주요 대학 및 민간연구소의 CO2 관련 국내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을 통해 2015년 이후 매년 1조원의 환경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교토의정서상의 CO2 배출규제 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응, 국내 경제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천항 갑문 휴식과 교육 공간으로 활용

인천항만공사(IPA·사장 서정호)가 제3회 인천해양축제의 일환으로 8월4일과 5일 이틀간 인천항 갑문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했다. 시민들은 이 기간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갑문운영처 월미문을 통해 부두에 들어가 각국 선박이 갑문을 통해 입출항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으며, 갑문 홍보관에서 인천항을 소개하는 멀티비전도 관람했다.

갑문은 월미산과 소월미도 사이에 위치하여 풍경이 아름다운데다, 해송과 은행나무 등이 심어진 잔디밭이 조성돼 하루 가족 나들이 휴식공간으로 더할 나위없이 좋은 장소로 꼽혀 왔다.

이번 갑문 개방은 인천 및 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 더 인천항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항구의 기능과 항만 경제의 중요성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현장 교육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항 갑문은 지난 1977년 1만톤급 배가 드나들 수 있는 1기가 완성된데 이어, 1990년 5만톤급 1기가 추가 증설됐다. 인천항 내항에 출입하는 모든 선박은 조수 간만의 차를 조절하는 이곳 갑문을 통해 출입해야 한다.